

국민 10명중 7명 '소비쿠폰' 신청했다... 5일간 6조5703억 지급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닷새 동안 국민 10명 중 7명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총 6조5703억이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전날 자정 기준 364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인 전 국민(5060만 7067명)의 72%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청 첫날 698만명, 둘째 날 731만명, 셋째 날에는 720만명이 몰렸다. 넷째 날에는 741만명이 신청했고, 닷새 동안 적용됐던 소비쿠폰 1차 신청 요일제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에는 753만명이었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696만5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모바일·카드형 564만692명, 지류형 60만1875명이었다. 선불카드 는 321만623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85만22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657만8408명), 인천(232만4053명), 부산(229만6361명), 경남(228만9303명) 순이었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행안부, 지난 21일부터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5일간 국민 72% 신청... 신용·체크카드 2696만명 '요일제' 종료... 9월 12일 18시까지 누구나 신청

또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적용됐던 소비쿠폰 1차 신청 요일제가 종료되면서 마감 기간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뉴스시스

'지금이 제철인데' 민어 가격 고공행진

기상 이변으로 어획량 줄어 위판가격 2배 이상↑ 지난해 kg당 2만5000원하던 활어 6만원까지 올라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제철을 맞은 민어가 잡히지 않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서민의 물고기'라는 가면서 정작 서민들이 맛을 보기에 버거우게 현실이다.

27일 목포수협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민어 위판량은 6kg 크기 이상 선어의 경우 6069kg, 활어 6145kg으로 모두 1만 2214kg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선어 1만 5481kg, 활어 1만 4528kg으로 전체 위판량 3만 9kg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7%에 그쳤다.

위판물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가격대는 2배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다. kg당 평균단가는 선어는 3만 5000원, 활어 6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선어 1만 5000원, 활어 2만 5000원 보다 적게는 133%에서 많게는 140%까지 올랐다.

최근 극한 호우 등 기상이변이 지속되고,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어선들

이 조업에 나서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민어전문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그날 그날 민어를 구입해 장사를 하다보니 가격이 높을 때에는 손님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면서 "8월 중순을 전후해서는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민어는 7월~8월이 제철이다. 신선 입자도를 중심으로 연근해에서는 5월부터 8월 사이에 많이 잡힌다. 산란기 직전인 이 시기에는 지방이 풍부해 맛이 가장 좋다.

통상 3kg 이상을 민어라고 하는데 5kg 이상 되어야 참 맛을 느낄 수 있다. 바로 잡은 민어회 보다는 하루 정도 냉장 숙성시키면 특유의 감칠 맛을 느낄 수 있다. 단백질과 비타민, 칼륨, 인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민어는 회와 조무침, 탕과 전 등으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뉴스시스

올 상반기 광주지법 기업파산 신청 42건... 10년새 최대치

올 상반기 광주지법에 지난해 파산 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42곳으로 통계가 공개된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 지역 경기 약화를 체감케 했다.

27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지법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42건이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5년 이래 최근 10년 사이 상반기 법인 파산 사건으로는 가장 많다.

매년 상반기(1~6월) 광주지법 접수 법인 파산 사건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10건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 18건을 시작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며 2023년 상반기 27건까지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접수된 법인 파

통계 공개된 2015년 이후 매년 상반기 기업파산 최대 법인 회생 신청도 27건, 이대로면 3년 연속 50건 넘나 개인 파산·회생 지난해比↑... "지역경제 빨간불 켜졌다"

산 사건은 33건이었다. 부채를 일부 탕감 받고 법정관리를 통해 재기를 노리는 법인 회생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올 상반기 광주지법 회생 합의 사건은 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건 수가 같다.

지난해 한 해에만 광주지법이 심리한 법인 회생 사건은 55건이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50건 이상 법인 회생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이래 3년 연속 지역 연고 기업 50곳 이상이 법

정관리 또는 도산 절차를 밟는 셈이다. 다만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파산 또는 법정관리 위기에 내몰린 지역 기업은 더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역에서 의존도가 높은 산업 중 하나인 건설업 불황이 부동산 경기 불황, 자금난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수 년째 공전 중인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 인수전,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등 지역 경기 약세가 잇따라 터지며 소규모 협력업체부터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 경제 역시 악화하고 있다. 올 1~6월 사이 개인이 광주지법에 접수한 파산 사건은 874건(명)으로 집계됐다. 개인 채무 회생을 광주지법에 신청한 3407명이었다. 개인 파산·회생 사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침체된 부동산 건설 경기도 건설업 관련 회사들이 최근 3년 사이 잇따라 쓰러졌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제조기업의 지역 공동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업·제조업 모두 여러 협력업체들이 얽혀 있는 업종이어서 연쇄 도산 위험이 크다. 여러 지표에서 지역경기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사실이다"고 분석했다.

신영길 기자

"국산 수산물 소비"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휴가 특별전

8월21일까지 개최... 국산수산물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 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3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이 진행된다.

이 기간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중성 어종 6종과 김 등 주요 물가 관리 품목뿐만 아니라 전복·장어·광어·우럭 등 여름철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을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8월1일부터 5일까지 전국 10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된다.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여름 휴가철을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맞이해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에 좋은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장소와 행사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시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2025년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휴게여건 개선을 통한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 1억1800만원을 투입해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

광주시 "산단 중소기업 휴게시설 고쳐드려요"

5~20인 사업체 최대 850만원 지원... 8월14일까지 신청

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지역 산업단지 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다. 광주시는 사업체당 총 공사비의 최대 80%(85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참여 신청 사업체 수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체는 광주시 또는 광주경제진흥생생일자리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를 작성, 오는 8월14일까지 광주시 기업지원시스템(www.gbizinf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광주경제진흥생생일자리재단 노사상생추진단(062-960-2653)으로 하면 된다.

임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